"보톡스 원료 보툴리눔 균주출처 싸움

제보내용

첫째. 메디톡스가 지금껏 고수해왔던 메디톡신(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A형 균주를 들여온 당사자가 양규환 교수란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
제보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당초 주장했던 보툴리눔 톡신 A형 균주를 들여온 당사자는 1970년대 이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수학한 양규환 교수가 아니라 1980년대 M교수이며 그가 H대 J교수와 함께 관리해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양 교수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정용훈 교수와 민병희 교수를 찾아와 보툴리눔 톡신 A형 균주 사업을 제의하면서 새로 설립할 회사 ㈜앤디소스(메디톡스의 전신)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전체지분의 30%를 주기로 약정을 맺었다는 것.

이후 정 대표는 2000년 5월 ㈜앤디소스(메디톡스의 전신)를 설립한 지 2개월 뒤 2000년 7월 지금의 메디톡스로 상호변경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약정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며 아예 H대 정용훈 교수와 결별했다고 한다.

이 제보대로라면 메디톡신(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A형 균주의 전달 단계를 정리하면 M교수→J교수와 M교수→양 교수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로 그려짐.

이에 이성완 과장은 정 대표로부터 H대 J교수와 일면식도 전혀 없는 사이라는 말을 건네 들었다"면서 "터무니없는 낭설"이라고 주장
이 제보자는 한 달 이상 함께 했던 근무자가 있으며 이들간의 관계를 증명해줄 수 있다고 주장

이후 정 대표는 2000년 5월 ㈜앤디소스(메디톡스의 전신)를 설립한 지 2개월 뒤 2000년 7월 지금의 메디톡스로 상호변경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약정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며 아예 H대 J교수를 회사에서 쫓아냈다는 것.

두 번째 이 제보는 정 대표의 주장한대로 양 교수가 보툴리눔 톡신 A형 균주를 한국에 들여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뒀음

당시 미국의 사정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통제하지 않았기에 양 교수가 보툴리눔 톡신 A형 균주를 한국에 들여올 수 있는 여건이었다는 것이 제보의 상황설명.
이 제보는 또 정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굳이 정용훈 교수를 찾아가 보툴리눔 톡신 A형 균주의 사업을 제의하면서 합류하는 조건을 내걸며 앤디소스(메디톡스의 전신)의 지분을 30% 주기로 약정을 맺을 필요까지 있겠냐(?)고 되물어옴

세 번째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보툴리눔 톡신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함.
메디톡스의 한국에 들여온 연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음. 1970년도엔 미국에서 조차 보툴리눔 톡신의 의료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시기가 될 수 없다고 함.

이 부분에서 상황 설명이 필요함.

지금은 미국의 상황이 바뀌어 2002년부터 독성이 강해 생물학제제로 엄격하게 관리하게 돼 이미 개발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 A형에서 7가지까지 모두 외국으로 유출이 아예 금지 돼 있다는 것.

네 번째 또 다른 증거로 4분의 행적(근무전력과 이력사항)이 겹친다는 제보임.